

이태훈 개인전: 꿈꾸는 선(線)

# Drawing the Dreamscape LEE Taehoon

2025. 11.21 - 12.20



Drawing the Dreamscape LEE Taehoon





# Drawing the Dreamscape Lee Taehoon

이태훈 개인전: 꿈꾸는 선(線)

2025. 11. 21 – 12. 20

## GREETING 03

이태훈 개인전을 개최하며 | 김효정, 갤러리 스킴로 대표

Presenting Lee Taehoon's Solo Exhibition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 FOREWORD 04

이태훈 개인전 <꿈꾸는 선(線)> | 육성수, 미술평론가

LEE Taehoon's solo exhibition <Drawing the Dreamscape>  
YOOK Sangsoo, Art critic

## ARTIST STATEMENT 08

## WORKS 10

## FOREWORD\_English 32

## ARTIST STATEMENT\_English 35

## ARTIST BIOGRAPHY 37



## Presenting LEE Taehoon's Solo Exhibition

written by |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갤러리 스클로는 11월 21일부터 이태훈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꿈꾸는 선(線) Drawing the Dreamscape》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뜨거운 여름과 긴 사유의 시간을 지나 도달한 한 지점, 감정의 궤적을 따라 선으로 그려낸 정화된 내면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더욱 정제된 밀도로 빛의 잔향을 담아 완성된 신작들을 선보입니다.

이태훈의 작업은 '필리그라나(Filigrana) 기법'을 바탕으로 유리선을 가열하고 늘리고, 다시 여러 겹 쌓아 올리는 반복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선(line)은 하나의 장식이나 패턴이 아니라, 유영하는 민들레의 작은 생명력에서 시작된 작가의 호흡과 흔들림, 그리고 고뇌가 응축된 '시간의 결'입니다.

한 줄의 선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유리의 표면에 남겨진 미세한 떨림, 색이 조용히 스며드는 농도, 여러 빛의 층이 만들어내는 잔향은 어둠을 통과한 감정이 빛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선으로 그린 마음의 밤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감정의 흔적들이 빛으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유리에 새긴 선은 더 이상 불안의 궤적이 아닌 평온의 언어로 남으며, 작품 앞에 선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빛의 잔향을 따라 잔잔한 울림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Gallery Sklo is pleased to present 《Drawing the Dreamscape》, the first solo exhibition of Lee Taehoon, opening on November 21. This exhibition marks a culmination of the artist's long summer of introspection, revealing a point of arrival where emotional trajectories are translated into line—a purified inner rhythm made visible. The works on view embody a refined density, holding within them the lingering resonance of light.

Lee's work is grounded in the 'Filigrana glass technique', in which glass canes are heated, drawn into delicate lines, and layered repeatedly to build form. In this practice, the line is not decorative nor merely structural; it arises from the subtle vitality of a drifting dandelion seed and is shaped by the artist's breath, tremor, and inner negotiation. The line holds the grain of time—a trace of moments slowly accumulated and settled into form.

Each line is not a single gesture, but a trace of the mind passing through. The subtle vibrations left on the glass surface, the slow diffusion of color, and the strata of luminous hues record a passage in which emotion moves through darkness and is gradually transfigured into light.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present what the artist describes as 'a night sky drawn in lines of the mind.' Within these, we encounter moments in which long-held emotions rise again, clarified and illuminated.

The lines inscribed in glass no longer carry the residue of unrest; they now speak in a language of quiet equilibrium. Standing before the works, the viewer may sense the afterglow of light extending inward, leaving a soft, resonant calm.



Inspiration Image from Aritst's Note | 2025

## 이태훈 개인전 《꿈꾸는 선(線)》

글 | \*육상수 (미술평론가)

하늘을 본다. 땅 위의 세상만사 제쳐두고 하늘을 본다. 하늘은 시선이 인지하는 비물질의 실제 없는 공간이다. 꿈과 이상의 안식처이자 동경과 회환을 위한 대안공간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땅의 의식과 사물은 희미해지고 무한의 공허는 어떤 삶을 도려내 도 피시킨다. 그곳에는 인위, 소요, 집착, 애욕, 허영과 같은 언어의 그림자는 없다. 그저 구름 몇 점과 헤아릴 수 없는 밤의 별과 별무리가 순례할 뿐이다. 신화와 죽음의 그림자, 사유와 집착의 부산물이 감지될 수 있으나, 보면 볼수록 밤하늘의 별은 점점 선명해지고 세속은 급속히 망각한다.

유리작가 이태훈이 별을 만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우연과 필연의 공동전선일 수도 있다. 늦은 시간, 작업실을 나설 때 지친 몸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올렸다. 잡목 위로 스치는 별의 흔적이 작가의 시선과 마주쳤다. 밤의 별을 보는 일이 반복되는 시선만큼 마음의 고요가 다가왔다. 작가만의 잡념과 불안의 칼날은 무더 갖고 감각은 평화로워졌다. 신이 인간을 두 발로 설 수 있게 한 것은 별을 볼 수 있게 함이었는가? 언제부터 인가 작가에게 별과 별무리는 물리적 대상이 아닌 사유의 캔버스로 다가왔다. 그 캔버스 위에 선을 그어내려 갔다. 선은 평행하고 엇갈리고 영키면서 무리를 이루었다. 다시 무리가 무리를 이루어 은하수를 그렸다. 마음의 캔버스에 별무리가 새겨졌는지, 별의 캔버스에 마음이 그려진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아무튼, 그 자리는 작가의 비생산적, 비유용성의 좌절감을 안치했다. 땅과 하늘의 중간 지점에 자생하는 별무리 궤도를 선이 부유하면서 새로운 감각이 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작가는 2년 전, 민들레 홀씨의 가는 외선 무리를 소재로 첫 전시를 열었다. 단순한 선의 반복으로 단색화의 미덕에 다가가고자 했다. 유리 속을 파고드는 선은 우주의 질서처럼 질서정연했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엄격한 선의 그리드에 변화가 필요했다. 바람에 의지해 홀로 떠다니는 민들레의 여린 선은 대지의 표면 위에 하강해 생명을 틔웠다. 민들레 홀씨가 그리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강 에너지다. 하지만 작가의 실존적 홀씨는 대지에 안착하기보다 상승 기류를 타고 우주 공간을 부유하면서 자유로운 선을 그리고 싶었다. 몸 따라 마음 가듯, 작가적 시선은 번번이 천상계 밤하늘을 향했고 영혼에 입맞춤하듯 별무리를 포용했다. 마침내 그의 가는 선은 지상을 떠나 공간으로 위치 값이 이동했다.

알베르 카뮈는 “창조는 한계와 무용성을 향해 저항하고 의식하는 것”이라고,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는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한 영역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했다. 예술은 한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고 몸의 감각이 지시하는 행동과 언어

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피어난다. 작가 정신이란 의미의 신경망에 부단한 자극을 주는 것이고 몸의 감각에 대응해 파동을 일으켜야 한다.

예술가는 정신과 몸의 감각이 부조리한 상태를 이룰 때, 분연히 일어서서 혁명가의 외투를 걸치고 투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태훈은 두 번째 개인전을 통해 기존 작품의 한계와 고립에서 벗어나 선이 그린 유리 작업의 시감각적 유용성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또한 작품의 유한성을 살피고 더듬어 '살아 있음'의 실존적 징후를 직관하고자 했다. 야만적 폭력성이 아닌 식물성 자유를 담고 싶었다. 민들레 홀씨가 거친 바람에 떠밀려 지상을 이동할 때 부르짖는 생명의 소리와 파동을 별에 전하고 싶었다.

이태훈의 개인전 '꿈꾸는 선(線)'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하는 우주 질서에 반응하는 한 예술가의 열정적 서사다. 그것은 세상 부조리의 증거일 수도, 예술가의 모진 삶의 투쟁기일 수도,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다. 자신의 색을 칠하고 조각하는 것이 예술가의 초상이라면, 작가는 기꺼이 하늘에 선을 그치고 그것이 이루는 선의 무리를 유리에 녹이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 우주는 직선운동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별이 거처하는 우주는 물질 입자의 에너지 운동이 생멸하는 암흑의 공간이다. 미립자 파동이 자가 발전하는 가운데 물질은 직선 운동을 펼치면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룬다. 그것이 바로 별이다. 천억 개의 별이 모여 다시 천억 개의 무리를 이루는 상상 불가의 공간이다. 우주 공간의 한 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행성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는 인간, 1그램도 채 미치지 못하는 민들레 홀씨는 대우주의 고유한 질서를 접하지 않고 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말할 수 없다.

먼저 그는 수직으로 내려앉은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을 동경하기로 했다. 정신착란의 고희가 상상한 별은 우주 그 자체였다. 고희의 별이 땅과 하늘의 수직 질서를 이룰 때, 이태훈은 중력에 기대어 별무리의 신비와 황홀을 선의 유동성을 차용해 유리에 조각했다. 비록 삶은 억압과 부당함의 연속이겠지만, 작품에서 조차 자기 해방을 이루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으리라. 이성을 버리지는 않되 몸의 오감에 따르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다. 함의적 관념 같은 것들은 모조리 버렸다. 오로지 별무리의 자전과 공전에 매몰되어 우주 공간을 식물성 감각으로 물들게 하는 경이로운 작업이고자, 침묵하는 선의 이미지를 만나고 싶었다.

신작 '꿈꾸는 선(線)'은 이태훈의 은신처이자 내밀한 안식처이다. 그는 매일 유리 집에 숨어들어 불을 지르고 바람을 일으킨다. 유리의 상태는 형태가 되고, 형태는 상태에 거주한다. 유리 작업에서 블로잉 기법은 작가의 입술을 지나온 호흡의 밀도에 의해 부풀어진 액체 상태이겠지만, 그것은 무정형이 정형이 되고, 무감각에서 감각이 탄생하는 송고함의 일면이기도 하다. 유리 점액에서 구(線)를 이룬 신

작은 우주의 빅뱅과 견주어야 한다. 그것은 카오스를 지나 코스모스에 이르는 원시성 우주를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블로잉은 호흡을 넘어 생명의 질서를 가늠하는 것이고, 창작의 근원에 근접하고자 하는 에너지다.

작가는 별 헤는 밤을 지나 점멸하는 유성을 채집해 자신의 유리 원형에 안착시켰다. 민들레 홀씨의 식물성 사유를 호흡에 유도했고, 고희가 되어 수직의 별무리로 유리 집을 지었다. 그는 매일 밤 별무리와 송고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 고개를 더 높이 들어올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별 자체임을 알리고 싶었다.

그의 유리 작업은 삶의 이치를 자각하는 물질 운동이자 생의 조각이다. 물질을 통해 우주의 숨은 뜻을 살피고 진리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예술의 한 통로다. 유리 작업에 새긴 선의 울동과 별무리 행진은 시각을 벗어나 오감에 이르러야 한다. "생(線)은 선물이고 나는 컵의 빈 공간과 맞닿은 태초의 은하수로 돌아갑니다."라고, 죽음을 앞둔 문학평론가 이여령의 고백이 새삼 각인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별의 질서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이태훈의 선 작업 또한 지상에서 우주의 끝 지점까지 가지런히 이어지는 시작점에 다시 놓여 있다.

꿈은 꿈 자체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가? 길 잃은 양떼를 찾아가는 목동이 초원에 누워 별을 바라보는 낭만이 삶의 실존에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작가의 유리 표면에 조각된 선의 무리와 우주의 별무리가 이웃이 되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고, 속과 겉이 통섭이 되는 그런 시절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다. 그의 작업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의 홀씨가 되고 별의 이방인이 되어 삶의 곁에 머무는 낭만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 오늘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았는가, 선이 그리워한 밤하늘의 별무리가 꿈이 되고 현실을 위로했는가. 직선과 곡선이 울동하는 '꿈꾸는 선(線)'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전하기 위해 탄생한, 또 하나의 별이다.

\*육상수는 매거진 디렉터와 카피라이터로 활동했다. 문화체육부 해외공보관에서 발행하는 'korean',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로 재직 중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2004년 환경매거진 '월간 숲', 2012년 공예매거진 '우드플래닛'을 창간했으며, 2018년 '우수잡지 문체부장관상' 수상, 2021년 '올해의 공예상,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출판으로는 '조선의 궤', '조선의 못', '99하우스', '여자목수', 'chair 101', 저서로는 '세상의 나무'가 있다. 현재는 우드플래닛 대표 겸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다음 작업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은 더 깊어졌고,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품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음 역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 작가노트에서 발췌

본 전시에 임하면서 정말 지독한 여름을 보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마주한 작품들은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야기로 포장된 작품을 만들어낸 자신에게 뿌듯함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끝내 지울 수 없었다. 다음 작업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은 더 깊어졌고,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품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음 역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반복과 시간의 누적으로 드러나는 질서와 결 속에 숭고함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선은 표현의 언어가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선의 치밀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형태 바깥으로 밀려났고, 형식은 단단해졌지만 그 안의 감정의 결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 무렵, 작업 중 잠시 쉬는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해 있었다. 밤하늘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 별들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내가 쌓아온 선 역시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은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겹겹이 쌓이며 하나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유리 위에 남는 선은 손의 기술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드러낸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쌓인 선에는 머무름과 주저함, 다시 이어가려는 의지, 그리고 그날의 호흡이 함께 남는다. 한 줄 한 줄 쌓여가는 선은 형태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지나간 자리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다시 마주할 때면, 그 순간의 감정과 속도가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다시 보게 된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은 이번 ‘Halo Star’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밤하늘을 묘사한 코발트 블루는 색채가 감정의 언어로 변해가는 강렬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그 붓질과 소용돌이는 과장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면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빛과 색으로 ‘천천히 변환’하려는 시도의 기록처럼 보였다. 감정을 다듬어 조용하게 놓는 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오래 남았다.

“선은 여전히 흔들리고, 겹치고, 불완전하게 남는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마음의 구조다. 별의 궤적은 선을 남기고, 나는 내가 만들어낸 유리선으로 나의 감정의 궤적을 따라간다.” - 작가노트에서 발췌

선은 여전히 흔들리고, 겹치고, 불완전하게 남는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마음의 구조다. 별의 궤적은 선을 남기고, 나는 내가 만들어낸 유리선으로 나의 감정의 궤적을 따라간다. 하나의 색유리를 가열해 선으로 늘리고, 그 선을 여러 겹으로 쌓아 또 하나의 층을 만든다. 그 반복과 겹침 속에서 선은 형태가 된다. 별의 궤적 사진이 ‘시간의 흔적’을 남기듯, 선들은 마음의 흔적이 쌓여 새로운 형상을 이룬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그 순간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둔다. 작은 입구를 다듬으며, 그 안에 내가 본 하늘의 구름 한 점을 깎아 넣는 마음으로 연마하였다.

작업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정답이나 완성에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라, 지나가는 마음의 속도를 작품의 표면에 그대로 남기는 일에 가깝다. 완벽한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결, 그 결이 만들어낸 고유한 리듬이다. 우리가 굳어가는 동안 남은 그 리듬이 바라보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진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Work Process, 작업 과정 | 2025  
Van Gogh 'The Starry Night', 반 고희 '별이 빛나는 밤'





# Drawing the Dreamscape

꿈꾸는 선(線)



## Halo Star

유리를 불로 녹이면, 안쪽에서 빛이 생긴다.  
그 빛은 표면을 돌고 겹치며, 어느 순간 하나의 중심을 만든다.  
나는 그 중심을 따라 선을 돌리고, 다시 겹쳐서 흐름을 만든다.  
온도와 속도, 그리고 내 호흡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빛이 퍼지다가 멈추는 지점, 그 경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 순간, 유리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난다.

When the glass melts, light appears from within.  
It turns along the surface, overlapping until it finds a center.  
I follow that center, drawing and turning the line again and again.  
Temperature, speed, and breath must move together.  
There is a point where the light spreads and then stops.  
At that boundary, a new light is born inside the glass.

Halo Star 1 (blue) 빛이 고리를 두른 별 1 | 2025  
h34 x w53 x d53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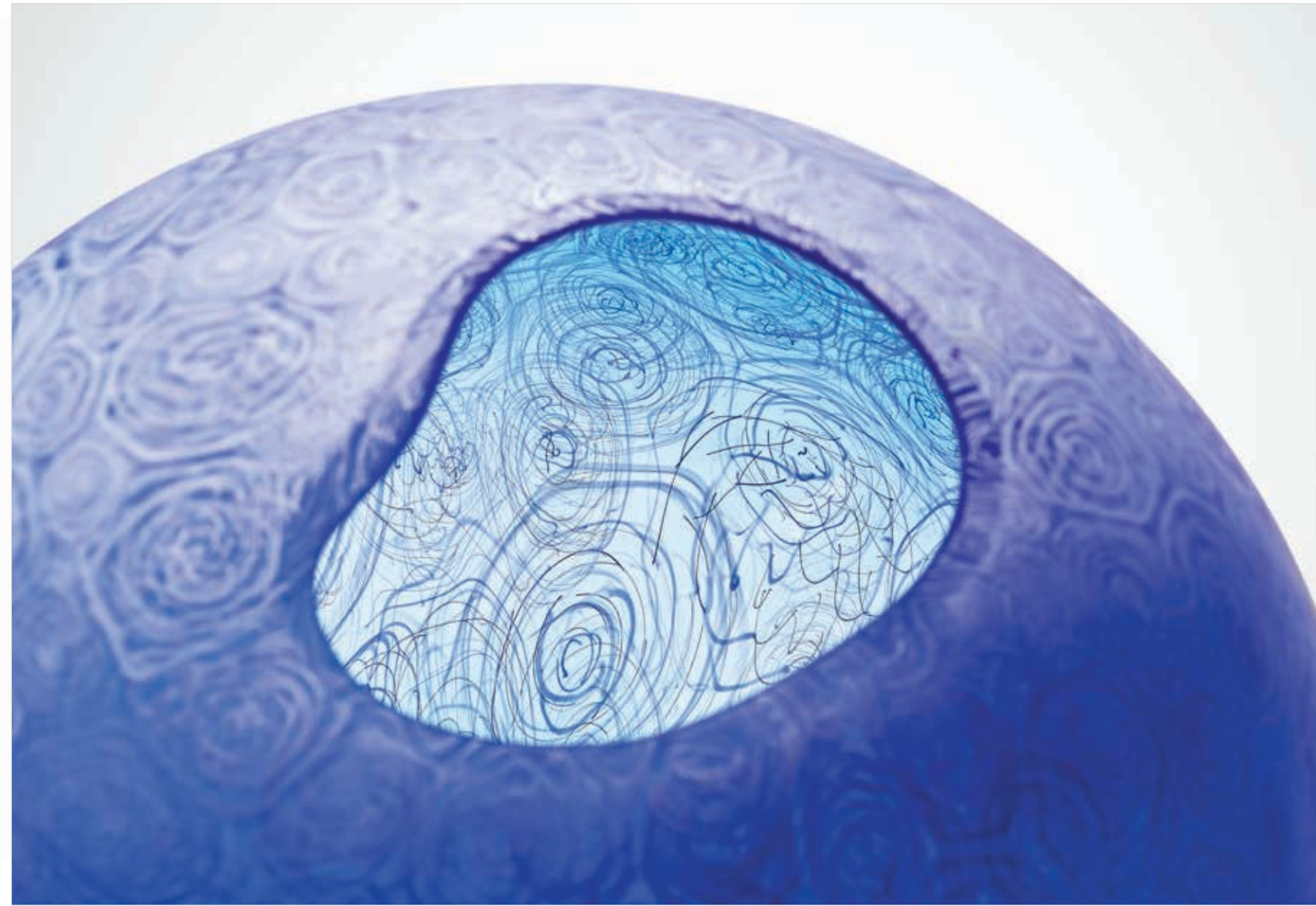




Nocturne in Blue 푸른 밤의 녹턴 | 2025 | h42 x w45 x d45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Blue Silence 푸른 침묵 | 2025 | h37.5 x w41 x d41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Halo Star 2 (violet) 빛의 꼬리를 두른 별 2 | 2025 | h28 x w45 x d42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Nocturne Before Dawn 새벽전의 녹턴 | 2025 | h30.5 x w36.5 x d36.5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 2025  
h20 x w48 x d46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 Silent Shift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불의 소리, 유리의 흐름, 내 호흡까지 하나로 이어진다.  
그때 우리는 액체에서 고체로, 움직임에서 멈춤으로 이동한다.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내부의 균형이 달라진다.  
그 미묘한 전환의 순간이 내겐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다.  
아주 조용하게, 모든 것이 제 위치를 바꾼다.

While working, there is a moment  
when all sound disappears.  
The noise of fire, the flow of glass,  
even my breathing, become one.  
In that silence, glass moves from liquid to solid,  
from motion to stillness.  
The form hardly changes, yet its balance shifts inside.  
That small transition is when I feel most alert.  
Everything changes quietly, finding its new place.

**The Silent Shift 1 (grey) 고요한 변화 1** | 2025  
h35.5 x w37 x d37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The Silent Shift 3 (amethyst) **고요한 변화 3** | 2025 | h29,5 x w35 x d35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The Silent Shift 2 (amethyst) **고요한 변화 2** | 2025 | h34,5 x w34 x d34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The Moment of Transformation **변주의 순간** | 2025 | h22,5 x w48 x d48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 Lone Seed of Spring

겨울이 지나고 작업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유리를 녹이는 불빛이 더 맑게 보이고,  
선의 색이 이전보다 부드럽게 번진다.  
봄은 밖에서 오는 계절이 아니라,  
유리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온도 같다.  
빛이 안에서부터 밝아질 때,  
나는 그 순간을 붙잡아 한 줄의 선으로 남긴다.

The Lone Seed of Spring 2 (green) 봄의 홀씨 2 | 2025  
h31.5 x w38 x d38 cm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fter winter, the air in the studio  
changes little by little.  
The flame looks clearer, and the color  
of the glass spreads more softly.  
Spring does not come from outside.  
It begins as a temperature that slowly  
rises inside the glass.  
When the light starts to brighten from  
within, I try to catch that moment in a  
single line.

The Lone Seed of Spring 1 (magenta) 봄의 홀씨 1 | 2025  
h38 x w40 x d40 cm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 A Small Dandelion Seed

유리를 녹이고 선을 늘릴 때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는다.  
그 떨림은 내 손끝의 리듬이기도 하고, 숨의 흔적이기도 하다.  
선이 겹치고 굽이치며 하나의 결을 만들면,  
그건 마치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민들레 씨앗 같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 가벼운 움직임이 나를 계속 작업으로 이끈다.

Each time I melt the glass and draw a line,  
a faint vibration remains.  
It is the rhythm of my hand, the trace of my breath.  
As the lines overlap and curve, they form a single grain —  
like a dandelion seed carried by the wind.  
I never know where it will land, but it keeps moving.  
That quiet motion is what keeps me working.



A Small Dandelion Seed 6 작은 민들레 홀씨 6 | 2025 | h19,5 x w22 x d22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5 작은 민들레 홀씨 5 | 2025 | h22 x w23,5 x d23,5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2  
작은 민들레 홀씨 2 | 2025  
h19.5 x w21 x d21 cm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8  
작은 민들레 홀씨 8 | 2025  
h15.5 x w17 x d17 cm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4 작은 민들레 홀씨 4 | 2025 | h18 x w19 x d19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7 작은 민들레 홀씨 7 | 2025 | h16 x w17,5 x d17,5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A Small Dandelion Seed 3 작은 민들레 홀씨 3 | 2025 | h19 x w21 x d21 cm | Blown, sandblasted and acid polished glass

## LEE Taehoon's solo exhibition «Drawing the Dreamscape»

written by | \*YOOK Sangsoo (Art critic)

We look up at the sky. Setting aside all matters of the world, we look upward. The sky is an immaterial expanse—formless, without substance—yet it becomes a refuge for dreams and ideals, a space of yearn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instant we raise our gaze, the awareness of earth and things fades, and the vast emptiness seems to carve out and carry away a portion of life's weight. In that space, the shadows of human language—artifice, restlessness, desire, vanity—dissolve. Only a few drifting clouds and uncountable stars continue their quiet pilgrimage. Myth and death, thought and obsession may flicker there, but the longer one looks, the clearer the stars become, and the faster the world below is forgotten.

It was perhaps by chance and inevitability alike that glass artist Lee Taehoon came to meet the stars. Leaving his studio late at night, his weary body lifted its head almost by reflex; above the dark trees, a trail of starlight met his eyes. That repeated encounter, night after night, brought with it a stillness of mind. The sharp edge of anxiety dulled; perception became peaceful. If divinity gave humankind an upright posture, perhaps it was so we could look toward the stars. In time, those constellations ceased to be physical entities and became instead a canvas of thought—a field upon which his inner lines could be drawn. His lines ran parallel, intersecting and entangling, forming clusters like constellations; those clusters gathered into a river of stars. Whether it was the mind inscribed upon the sky or the sky that engraved itself within the mind remains uncertain. Yet in that suspended space between heaven and earth, new sensations began to take root.

Two years ago, Lee's first exhibition took as its motif the delicate outer filaments of a dandelion seed. Through the repetition of simple lines, he sought the quiet discipline of monochrome. The lines that penetrated the glass carried an order as precise and sublime as the structure of the cosmos. But over time, the rigid grid of his compositions demanded release. The dandelion's fine strands—borne by the wind, seeking ground—suggested an energy of descent. Lee, however, wished not to fall earthward but to float upward, to drift freely through space, following the upward current of his own being. As his gaze turned ever skyward, the artist's spirit came to embrace the celestial and its innumerable constellations. His once-earthbound lines began to ascend, taking position in space itself.

Albert Camus wrote that creation i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limitation and futility, while the Greek poet Pindar

counseled not to yearn for immortality but to live fully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Art, then, is born of one's recognition of constraint and one's faithfulness to the movements and language of the body's own sensibility. The artistic mind must constantly stimulate its network of meanings and respond to the body's pulse with waves of expression. When spirit and sense find themselves in an absurd imbalance, the artist must rise, don the mantle of the revolutionary, and sing the song of the insurgent. In this second solo exhibition, Lee Taehoon seeks to free himself from the isolation and limits of his earlier work—to reconsider the sensory and temporal value of line within glass and to intuit the existential signs of what it means to be alive. He wishes not to convey a raw violence but a botanical freedom—to translate the faint sound and vibration of life, like a dandelion seed carried by rough wind, into the language of stars.

“Drawing the Dreamscape” unfolds as an impassioned narrative of an artist responding to the cosmic order that shifts from moment to moment. It may be read as a testament to worldly absurdity, a record of artistic struggle, or a longing for the unknown. If to paint and sculpt one's own color is the portrait of the artist, Lee chooses instead to draw lines in the sky, melting their constellations into glass as a way of resolving the questions of reality.

The universe is composed of linear motion. The stars inhabit a vast darkness where the energy of matter is born and extinguished in waves. As subatomic vibrations generate themselves, matter moves forward in straight lines, forming immense masses—stars gathering by the hundreds of billions into galaxies beyond imagination. Within this infinitesimal corner of the cosmos, even a dandelion seed, weighing less than a gram, cannot speak meaningfully of existence without acknowledging that immense order.

Lee turns his gaze to Van Gogh's “Starry Night,” where the painter's imagined stars became the universe itself. If Van Gogh's stars established a vertical order between earth and heaven, Lee's lines, by contrast, carve the fluid rhythm of the stars into glass, leaning into gravity while reflecting on the wonder and rapture of constellations. Though life may be filled with oppression and injustice, he could not bear to deny himself liberation even within art. Without abandoning reason, he struggled to follow the senses—to strip away imposed meanings and allow only the rotation and revolution of stars to color space with a vegetal sensibility. His aspiration was to encounter the image of a silent line—a vision of stillness that vibrates.

The new works of “Drawing the Dreamscape” form both a sanctuary and a refuge for the artist. Each day he enters his “house of glass,” igniting fire and summoning wind. In his process, state becomes form and form, in turn, inhabits state. Through the act of blowing, molten glass expands with the density of breath—an amorphous mass that attains shape, a moment when the insensible gives birth to sensation. The resulting spheres recall the Big Bang itself, recording a primordial transition from chaos to cosmos. His act of blowing is more than breath; it measures the rhythm of life and reaches toward the origin of creation.

The artist gathers the fleeting meteors of the night sky, placing them within the orbs of glass. He guides the vegetal thought of the dandelion through breath, becomes Van Gogh, and constructs a house of glass along the vertical constellation. Night after night he lifts his gaze higher, striving for a sacred meeting with the stars—to remind us that we ourselves are also stars.

Lee Taehoon’s glass practice is both a material meditation on the logic of existence and a sculpting of life itself. Through matter, he seeks the hidden order of the cosmos, experiencing truth and beauty as one continuous act. The rhythm of his engraved lines and the procession of constellations extend beyond sight into the other senses. As the late literary critic Yi Oryeong once reflected, “Life is a gift, and I return to the primordial Milky Way that touches the empty space of a cup.” Just as the stars sustain an unfathomably precise order, Lee’s lines align quietly—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toward the farthest edge of the universe—returning always to their beginning.

Dreams, perhaps, are most beautiful when they remain dreams. Like a shepherd lying in a field gazing upward, unwilling for his reverie to break against the world’s reality, we may wish to linger in this moment where the artist’s constellations of glass and the stars of the cosmos meet, where inside and outside, matter and spirit, become one. His work invites us to dwell—if only briefly—in that homeland of reverie, where a line etched in glass becomes a living seed of life and a gentle alien star at our side.

---

\*YOOK Sangsoo is a magazine director and copywriter. As a reporter at the editorial bureau of the JoongAng Daily and at KOREAN, a public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Overseas Public Affairs Office, Yook focused on Korea’s cultural heritage. In 2004, Yook founded the environmental magazine “Monthly Forest,” and in 2012, the craft magazine Wood Planet, going on to receive 2018’s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for Excellent Magazine” and 2021’s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for Craft of the Year.” Publications include “Chests of Joseon,” “Nails of Joseon,” “99 House,” “Woman Carpenter,” “chair 101” and Yook is the author of “Tree of the World.” Currently, Yook is an active art critic and the CEO of Wood Planet.

“The fear and hesitation toward the next work only deepened. I tried to devote myself to patterns no one had attempted before, but the more I pursued them, the more the work fell into a maze, and my mind, too, began to lose its way in the dark.” – from the artist’s note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meant enduring a long and difficult summer. In the quiet studio, the works I faced brought many thoughts to the surface. There was a sense of pride in having completed pieces that carried a story, yet I could not put away the question: ‘Is creating something beautiful truly enough?’ The fear and hesitation toward the next work only deepened. I tried to devote myself to patterns no one had attempted before, but the more I pursued them, the more the work fell into a maze, and my mind, too, began to lose its way in the dark.

For a long time, I believed in the idea of a “beautiful line.” I thought that the order and grain revealed through repetition and time contained a sense of the sublime. But at some point, the line no longer felt like a language of expression, and instead became something I had to prove. As the lines became more precise and controlled, my feelings seemed to drift further away from the form itself. The shape grew stronger, while the emotion inside slowly faded.

Around that time, I found myself often looking up at the

sky during breaks from work. There was no particular reason, yet my gaze naturally lifted upward. The night sky seemed unchanged, but within it was a quiet, imperceptible movement. The stars, seemingly still, were in fact shifting—very slowly, yet unmistakably. Realizing this allowed me to understand my own lines in the same way.

A line is not made in an instant; it appears only after time has been layered into a single motion. The lines that remain on the glass reveal the state of the mind more than the skill of the hand. Repetition leaves behind hesitation, persistence, breath. Each layer of line is not simply form—it is a trace of where I have been. And when I return to the finished work, the feeling and tempo of that moment return as well.

Seeing Van Gogh’s ‘The Starry Night’ again became a starting point for the ‘Halo Star’ works. The cobalt blue of the night sky showed how color can become the language of feeling. His swirling strokes did not seem like dramatic emotional outbursts, but rather an attempt to move an

## ARTIST STATEMENT\_English

“The lines still tremble, overlap, and remain imperfect. But that imperfection is not something to correct. It is the structure of a living mind.” – from the artist’s note

inner turbulence gently into light and color. Knowing that emotion can be placed quietly, without erasing it—that stayed with me.

The lines still tremble, overlap, and remain imperfect. But that imperfection is not something to correct. It is the structure of a living mind. As the stars leave their trajectories in the sky, the glass lines trace the movement of my own emotions. I heat a single color of glass into a thread, layering one line upon another to build a new surface. In that repetition, the line becomes form. Just as star trails record the passing of time, these lines become accumulated traces of feeling.

The work is no longer a process of reaching a conclusion. It is not about approaching the ideal, but about allowing the pace of the mind to remain on the surface. What matters more than a perfect form is the rhythm of time held within it. If that rhythm can continue quietly in the eyes and time of the person who sees it, then that is enough.



## Artist Biography



# LEE Taehoon 이 태훈 | Korea, b.1983

**PRESENT**  
1200point Glass Studio 운영

**EDUCATION**  
2015 국민대학교 유리조형 디자인대학원 석사졸업, 서울  
2009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학사졸업, 천안

**SOLO EXHIBITIONS**  
2025 꿈꾸는 선, 갤러리스클로, 서울  
2023 Filigree glass\_홀씨, 모노하 한남, 서울  
디티람보스(The Dichyrambos), A'lement\_1F, Lotte Department Store, 동탄  
2019 Your Teddy Bear, KCDF 윈도우 갤러리,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제6회 Triennale of Kogei in Kanazawa,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일본  
Illuminated 창작의 빛: 한국을 비추다, Design Miami, In Situ (Seoul), 갤러리스클로, DDP 이간수문전시장, 서울  
Oasis : 섬과 영감을 위한 시간, 솔루나리빙, 서울  
유리:빛과 불의 연금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경상남도

2024 Define Seoul 2024, 에스팩토리, 서울  
일상의 파랑: Parang in daily life, 유현상재, 서울  
Meet the Hot Glass,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여주, 경기도  
제1회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최종선정자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저 달, 산, 굽이 흐르는 강들과 같이, KCDF 갤러리, 서울  
For Reunion, Taoxichuan, 중국  
夏の挨拶 : 안녕, 여름, RAC 갤러리, 부산

2023 WINTER STORY of Fire Elements, 4인전, 갤러리스클로, 서울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예술감독 강신재,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22 Fill red, Feel blue, JN gallery, 서울  
2021 빛의 농담濃淡, handle with care, 서울  
2020 十萬物(십만물) : 공예로 사방을 통하다, 갤러리솔루나, 서울  
Cups, KCDF 하반기 자체기획전, KCDF갤러리, 서울  
한국 현대유리의 진화 2020展,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천안, 충청북도

2019 40인의 식사도구, 청주, 충청남도  
Hot Glass NOW, 청주한국공예관, 청주, 충청남도  
本, 서울디자인재단 마포공예지원센터 전시관, 서울

Beyond Glass,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18 익숙함, 낯설, 한일 Ceramix Workshop,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경기도  
Glass House, KCDF 제3전시장, 서울  
삼척 도계 유리마을 개관전, 유리마을 갤러리, 삼척, 강원도  
Glass holic, 갤러리 세울, 서울

2016 Un bello momento, 아름다운 순간, 갤러리 다함, 안산, 경기도  
동시대 유리 풍경 전, 대부도 유리섬 미술관, 안산, 경기도  
유리섬 이야기, 대부도 유리섬 미술관, 안산, 경기도  
2015 제11회 아올 전, 이양갤러리, 서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유리조형 전, 국민대학교 조형갤러리, 서울  
Meet The Hot Glass, 대부도 유리섬 미술관, 안산, 경기도  
The Power of Art, 시화 조력발전소 갤러리, 시흥, 경기도  
HAND+ 확장과 공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옛 청주연초제 조창, 청주, 충청북도

**ART FAIRS**  
2025 Révélations Biennial, 청주국제비엔날레 수상자 선정, 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COLLECT, 갤러리스클로, Somerset House, 런던, 영국  
COLLECT, 갤러리스클로, Somerset House, 런던, 영국  
2024 일상명품, 공예트렌드페어 주제관 선정작가, 코엑스, 서울  
DDP Design Fair, DDP, 서울  
2020 Craft Bangkok 2019, 방콕, 태국  
2019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선정작가, 코엑스, 서울  
2018 공예트렌드페어 디자인 상품 개발관 선정작가, 코엑스, 서울  
매중 오브제, DDP, 서울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싱가포르  
2015 Art Edition Fair, 홍익대학교, 서울  
영일대 Hotel Art Fair, 영일대 호텔, 포항

**WORK EXPERIENCES**  
2024- 현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유리과 출강 (강사)  
2020- 현재 청주대학교 유리공예과 출강 (겸임교수)  
2020- 현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유리조형과 출강 (겸임교수)  
2023 공예분야의 속이야기 Session2 창작스튜디오 운영 강연  
2019 강원대학교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특강  
2018- 2019 한국예술종합 대학교 조형예술과 출강  
2018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유리디자인과 특강

**COMMISSIONS**  
2025 NETFLIX, VIP 선물세트 디자인 & 제작

2024-2025 창덕궁 내전 권역 황실 조명기구 재현 제작  
2020 신라 분묘 출토 유리기 재현품 제작

**RESIDENCY**  
2024 타오시추안 레지던시, 경덕진, 중국  
2018 마포공예센터 레지던시, 서울시 디자인재단, 서울

**AWARDS & GRANTS**  
2025 제6회 가나자와 코게이 국제 공모전 압선  
2024 제1회 유리지 공예상 최종 20인 선정  
2023 제12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공예공모전 부분 은상  
2022 제7회 서리풀 Art for Art 특선  
2019 KCDF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 사업 후속지원작가 4인 선정  
경기 북부 생활문화 계층별맞춤 공모사업 당선  
2018 KCDF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 사업 20인 선정  
2015 Full scholarship, Corning Museum of Glass 'Martin Janescky' Class, NY, 미국

**PUBLIC COLLECTIONS**  
Victoria & Albert 미술관, 런던, 영국  
국제 공예 비엔날레, 청주, 충청북도  
도계 유리마을, 삼척, 강원도  
대부도 유리섬 미술관, 안산, 경기도  
유리의상 미술관, 제주도



**PRESENT**  
1200point Glass Studio

**EDUCATION**  
2015 Master of Glass Desig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Seoul  
2009 Bachelor of Environmental Art & Design,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SOLO EXHIBITIONS**  
2025 Drawing the Dreamscape, Gallery Sklo, Seoul, Korea  
2023 Filigree glass\_Dandelion seeds, MONOHA hannam, Seoul  
The Dichyrambos, A'lement\_1F, Lotte Department Store, Dongtan, Korea  
2019 Your Teddy Bear, KCDF Window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6th Triennale of Kogei in Kanazawa,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Japan  
ILLUMINATED : A Spotlight on Korean design, Design Miami,In Situ (Seoul), Gallery Sklo, DDP, Seoul  
Glass: Born of light shaped by fire,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Oasis : Rest and Inspiration Time, Soluna Living, Seoul  
2024 Define Seoul 2024, S factory, Seoul  
Parang in daily life, Younhyun\_hands\_Store B-E's, Seoul  
Meet the hot glass, Gyeonggi Craft Center, Yeosu, Korea  
YOOLIZZY Craft Award Exhibition, Seoul Craft Museum, Seoul  
Like the Moon, Mountains and Winding Rivers, KCDF, Seoul  
FOR REUNION, Taoxichuan, China  
夏の挨拶 : Hello, Summer, RAC gallery, Busan, Korea  
2023 Winter Story of Fire Elements, Gallery Sklo, Seoul  
Again, a letter to natur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22 Fill red, Feel blue, JN gallery, Seoul  
2021 Shade of Light, Handle with Care, Seoul  
2020 十萬物(100,000 objects) Craft Road through All Directions, Gallery Soluna, Seoul  
KCDF Exhibition 'Cups', KCDF Gallery, Seoul  
Korean Contemporary Glass Evolution 2020,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eonan, Korea  
2019 Food Items for 40 People, Cheongju, Korea

Hot glass NOW, Cheongju Korean Crafts Museum, Cheongju, Korea  
Beyond Glass, Gallery Insa Art Center, Seoul  
2018 Opening Exhibition, Korea,Japan Ceramix workshop, Icheon World Ceramic Center, Icheon, Gyeonggi-do, Korea  
Glass House, KCDF Gallery, Seoul  
Inaugural Exhibition, Dogye Glass Village Gallery, Samcheok, Korea  
Glass Holic, Gallery Sejul, Seoul  
2016 Un bello momento, Gallery Daham, Ansan, Korea  
Contemporary Glass Landscape, Daebudo Glass Island Museum of Art, Ansan, Korea  
Story of Glass Island, Daebudo Glass Island Museum of Art, Ansan, Korea  
2015 11th Namseoul University 'Aoi', Gallery lang, Seoul  
Glass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Meet The Hot Glass, Daebudo Glass Island Museum of Art, Ansan, Korea  
The power of Art, Sihwa Tidal Power Plant Gallery, Siheung, Korea  
HAND+, 9th Cheongju Craft Biennale, Cheongju, Korea

**ART FAIRS**  
2025 Révélations Biennial, Selected by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Grand Palais, Paris, France  
COLLECT, Gallery Sklo, Somerset House, London, UK  
COLLECT, Gallery Sklo, Somerset House, London, UK  
2024 Craft Trend Fair 'Extraordinary objects that shine in my life', COEX, Seoul  
DDP Design Fair, DDP(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2020 Craft Bangkok 2019, Bangkok, Thailand  
2019 Maison Objet 'DDP store', DDP, Seoul  
2018 Craft Trend Fair, Coex, Seoul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Singapore  
2015 Art Edition Fair, Hongik University, Seoul  
Youngildae Hotel Art Fair, Pohang, Korea

**WORK EXPERIENCES**  
2024-Present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Ceramics and Glass,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2020-Present Adjunct instructor, Department of Glass Art, Cheongju University  
2020-Present Adjunct instructor, Department of Glass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2023 Lecture for Craft Talk: Inside the Field of Contemporary Craft,

Session 2-Creative Studio Management  
2019 Special Lec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ving Form Design  
2018-2019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Fine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18 Special Lecture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Department of Ceramic & Glass Design

**COMMISSIONS**  
2025 Design and Production for NETFLIX VIP Gift Set, Korea  
2024-2025 Reproduction of Royal Lighting Fixtures for the Inner Halls of Changdeokgung Palace, Korea  
2020 Production of Reproductions of Glass Artifacts Excavated from Silla Tombs, Korea

**RESIDENCY**  
2024 Residency at Taoxichuan, Jingdezhen, China  
2018 Residency at Mapo Craft Support Center, Seoul Design Foundation

**AWARDS & GRANTS**  
2025 Selected, Kogei World Competition in Kanazawa, Japan  
2024 Finalist, YOOLIZZY Craft Award Final 20, Seoul Craft Museum, Seoul  
2023 Silver Priz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heongju, Korea  
2022 Special Selection, Art for Art, Seocho Art, Seoul  
2019 Follow-up support for KCDF Craft/Design Star product development, KCDF, Seoul  
Winner, Gyeonggi Northern Region Cultural Lifestyle Customization Project  
2018 Selected, KCDF Craft/Design Star Product Development, KCDF, Seoul  
2015 Full scholarship, Corning Museum of Glass 'Martin Janescky' Class, NY, USA

**PUBLIC COLLECTIONS**  
Victoria & Albert Museum, London, UK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Korea  
Dogye Glass Village Art Museum, Samcheok, Korea  
Daebudo Glass Island Museum of Art, Ansan, Korea  
Jeju Glass Castle Museum, Jeju, Korea

## AWARDS & GRANTS



2024 제1회 유리지 공예상 결선 진출작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Finalist, YOOLIZZY Craft Award Final 20, Seoul Craft Museum, Seoul  
Sunset Dandelion Seeds 1 | 2024 | h40 x w45.5 x d45.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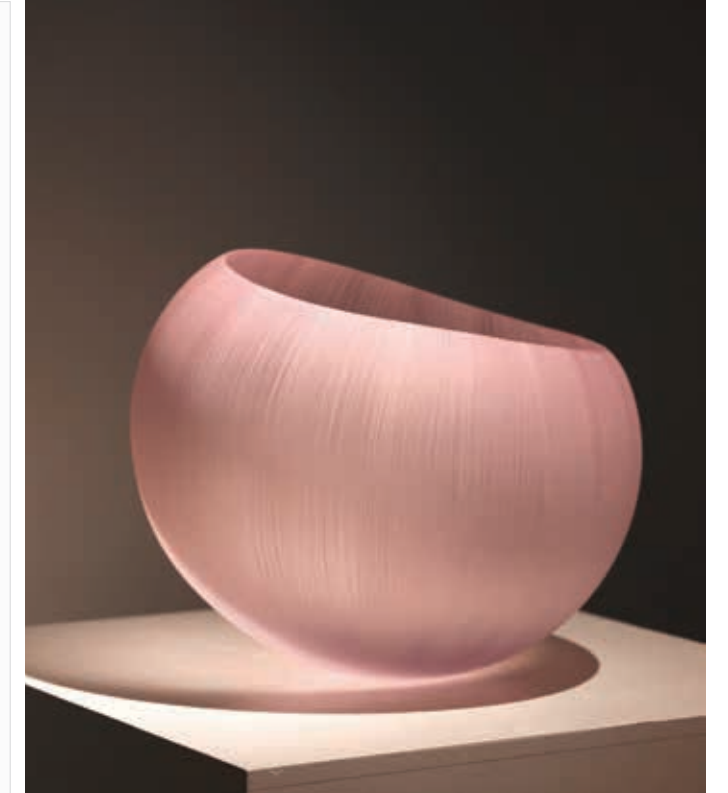
2023 제12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은상 수상작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  
Silver Priz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heongju, Korea  
Moonlight Dandelion Seeds | 2023 | h39 x w51 x d51 cm



2022 제7회 서리풀 ART for ART 특선작  
Special Selection, ART for ART, Seocho Cultural Foundation, Seoul  
Dandelion Seeds on a Rainy Day 1 | 2022 | h30.5 x w43 x d43 cm



2025 제6회 Triennale of Kogei in Kanazawa 공모전 입선작 (일본 21세기미술관 전시)  
Selected Artist, 6th Triennale of Kogei in Kanazawa,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Japan  
Dandelion Seeds in the Blue Sky | 2023 | h36 x w44 d44 cm



2024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영구소장 작품  
Permanent Collection,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Dandelion Seeds on a Sunny Day | 2023 | h35 x w42.5 d42.5 cm

도록 진행 PUBLICATION  
갤러리 스킴로 Gallery Sklo

디자인 DESIGN  
사진 PHOTO  
인쇄 PRINT

graphicat  
명용인 MYOUNG Yongin (작품 이미지)  
송인범 SONG Inbeom (전시 전경, 작품 이미지)  
비주얼볼 Visual VOM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갤러리 스킴로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Gallery Sklo.  
Copyright © 2025 All rights reserved

